



www.at.or.kr

호주 농식품 수출품목 소매가격조사 12월



김



음료류



주류



제과류



면류



소스류



기타 가공식품



신선식품



스낵류

수요 증가 ▲ “ 호주에서 새로운 맛으로 인기를 끄는 크라운社 콘칩 ”

호주에서 다양한 식품을 수입 및 유통하고 있는 TI TRADING의 담당자는 최근 크라운社의 콘칩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옥수수맛 과자에 대한 호주 현지인들의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콘칩 판매량도 증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크라운社의 콘칩은 부드럽고, 짭짤한 맛이라 호주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것 같다고 언급하며, 나초나 토르티야와 다른 새로운 맛이라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다른 옥수수맛 스낵 취급도 고려중에 있다고 언급하며 옥수수맛 과자의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했다.



[크라운社 콘칩]

수요 증가 ▲ 가격 하락 ▼ “ 디왈리(Diwali)축제를 맞아 수요 증가한 인도 스낵 ”

호주에서 일본, 중국, 태국, 인도 등으로부터 아시아 식품을 수입하고 있는 Ostindo International Pty Ltd의 담당자 Mr. Adul Hasnat은 인도 스낵의 판매량이 상승했다고 전했다. 수요 증가 이유로는 10월의 디왈리 축제를 들었다. 또한, 디왈리 축제기간을 맞아 많은 회사들이 판촉행사를 진행하여 소매가격이 하락했다고도 언급했다. 판촉행사는 보통 할인 및 일정 물량을 구매할 시 덤을 주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인도 소비자가 주 고객인 해당사도 판촉행사를 진행했으며, 축제에 의해 진행되는 판촉행사의 기간은 약 2달 정도로 다른 행사보다 다소 길게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축제기간에 거의 대부분의 판매처에서 제품가격을 낮추어 판매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도 판촉행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매년 디왈리 축제기간에는 인도 스낵에 대한 높은 수요와 가격 하락을 예상했다.



[인도 스낵]

※ 디왈리 축제 (Diwali Festival) : 디왈리 축제는 힌두교 3대 축제이며 빛의 축제라고도 불림. 축제 기간에 집집마다 작은 등불을 밝히고 힌두교 신들을 맞이해 감사기도를 올리는 전통 축제임. 축제는 힌두교 태음력 일곱 번째 달의 여덟 번째 달의 셋째 날까지 닷새 동안 열림

가공식품

수요 증가 ▲ “ 낮은 가격과 인지도 증가로 늘어나는 중국산 버섯 판매량 ”

스낵류와 소스류를 비롯한 아시아 식품을 수입 및 유통하고 있는 Yuen's Market Trading Company의 CEO Mr. Kevin Yuen은 중국으로부터 직수입한 버섯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아시아 버섯에 대해 생소함을 느꼈던 호주 소비자들의 인식이 개선되면서 판매량도 자연스럽게 상승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중국산 버섯의 저렴한 가격도 수요가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산 버섯의 판매량이 증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지도가 늘어날수록 수요도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산 버섯]

음료류

수요 증가 ▲ “ 건강 음료에 대한 관심 높아져 수요 증가하는 아몬드 드링크 ”

멜버른에서 인도와 중국, 일본 등으로부터 아시안 식품을 수입유통하고 있는 Ostindo International Pty Ltd의 담당자 Mr. Abdul Hasnat은 최근 MTR 브랜드의 아몬드 드링크 판매량이 상승했다고 전했다. 그는 MTR 바담 드링크의 판매량 증가 원인은 인도 업체인 MTR FOODS社가 호주 음료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판촉 프로모션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MTR FOODS가 호주 시장에 진입하려는 이유는 호주에서 건강 음료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아몬드 드링크는 건강 음료로 분류되며, 우유보다 칼로리가 낮고 고소한 맛을 가지고 있어 건강 음료 수요가 높아진다면 아몬드 드링크에 대한 선호도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MTR 바담 드링크]